

순천시 쓰레기 문제 해결 공론화 돌입 주목

전문가·시민 등 63명 공론화위원회 출범 올해 연말까지 활동 자원순환센터·쓰레기매립장 등 민선7기 첫 속의민주주의 시도

순천시가 운영한지 4년만에 가동을 중단한 순천자원순환센터 문제 해결과 쓰레기 매립장 신설 등의 논의를 위한 시민공론화 절차에 들어갔다. 특히 민선7기 들어 첫 속의민주주의로 시도되는 공론화여서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순천시는 지난 7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순천시 자원순환정책과 쓰레기 문제의 합리적 해결방안 마련하기 위한 '쓰레기 문제해결 공론화 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시민공론화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공론화위원회는 환경 관련 전문가와 공무원, 시민, 시의원, 시민단체 대표, 주민자치협의회, 시민 등 64명으로 구성했다.

위원회는 이날 첫 회의를 열어 논의에 들어갔으며 올해 말까지 활동한다. 시는 공론화위원회 출범으로 지역 최대 현안인 자원순환센터 운영 중단에 따른 대책을 마련한다. 쓰레기처리장 신규 조성에 대해서도 공론화 과정을 거친다.

시는 이번 공론화 위원회 출범을 시작으로 지역 최대 현안인 자원순환센터 운영 중단에 따른 대책 및 신규 처리시설 조성 방향에 대한 주민 주도의 공론 과정을 거쳐 합리적 해결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달 28일 쓰레기 문제의 중장기 대책 마련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나왔던 '100인 시민 토론회'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공론화 위원회' 구성·운영

하지는 방안이 제시됐다. 여주시 관계자는 "연말까지 100여일간의 공론화위원회 운영 과정을 통해 순천의 최대 현안인 쓰레기 처리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는데 원칙적 합의를 이끌어 내고, 분리배출 및 No플라스틱 운동 등 시민사회와 지역주민들과의 다양한 실험이 전개 될 것이다"고 말했다.

오는 15일에는 쓰레기 공론화 위원회 주관으로 순천시 쓰레기 정책 발전과 자원

순환토크 등 '자원순환 광장토론회'를 개최해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를 청취할 예정이다.

허석 순천시장은 "이번 공론화 위원회 출범이 지역의 가장 어려운 문제를 시민들의 집단지성의 힘으로 지혜롭게 풀어나가는 좋은 사례가 되고 직접 민주주의의 실현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문제가 되고 있는 순천시 자원순환센터는 순천에코그린(대선건설의 5개 투자사)이 전체 사업비 787억원(국비 257억, 민간 530억)을 들여 민간투자사업(BTO) 방식으로 신축해 2014년 6월부터 운영해왔으나 쓰레기 반입량이 줄면서 적

자로 운영되다 지난달 1일 가동이 중단됐다. 매립용량은 총 24만8282㎡ 중 4년만에 16만9596㎡(68.3%)를 사용한 상태다.

순천에코그린은 그 동안 누적적자 127억원 상당을 순천시에 청구했으나 지난 6월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이후 순천시는 운영업체에 수차례 정상가동을 촉구했지만 이행하지 않아 법적 대응에 나서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현재 생활쓰레기는 왕지동 매립장에서 임시 처리하고 있지만 잔여용량이 3년에 불과해 대체 시설이 시급한 실정이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순천시가 '쓰레기 문제 해결 공론화 위원회'를 출범시키는 등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100인 대장정 이나섰다. 지난달 28일 열린 '100인 시민 토론회'.

순천 명품 낙안배 27t 대만 수출

순천시의 수출 주력 과수인 명품 낙안배(사진)가 폭염과 태풍을 이겨내고 대만으로 수출되고 있다.



순천낙안배영농조합법인(신고) 27t(6500만원 상당)에 대해 컨테이너 선적 작업을 실시했다.

낙안배 생산단지인 울 여름의 지속적인 폭염과 제19호 태풍 솔릭이 휩쓸고 간 후 약 40% 낙과 피해를 입었지만 신속한 대응과 피해복구로 손실을 최소화

이전에 수출한 신고배는 박스당 5kg 규격으로 수출돼 대만의 백화점과 대형

마트에 입점 된다. 순천시 관계자는 "울 여름의 폭염과 태풍 등 기상재해에도 불구하고, 고품질 명품 낙안배를 생산해 안정적인 수출에 정착한 생산농가들에게 보다 많은 수출 지원 정책을 펼쳐 내수시장 가격 안정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

순천 산림특화작물 '모링가' 활성화 박차



시, 도산림연구소와 업무협약

순천시가 지역 산림특화작물인 '모링가' 산업 활성화에 팔을 걷어 부쳤다. 11일 순천시에 따르면 최근 '모링가 산업 활성화' 및 고용창출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남도 산림자원연구소와 상호 업무 협력 및 지원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업무협약에는 '모링가 재배기술 및 명품 모링가 육성·보급 관련 연구', '순천시 대표 특화작물 육성을 위한 식재·가공·제품 개발', '모링가를 이용한 신제품 및 발효 제품 개발 등 기술개발' 등 모링가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개발 및 협력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전남도 산림자원연구소는 순천만모링가협동조합과 '모링가 재배 기술 및 제품 기술이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모링가
인도와 파키스탄 등 히말라야가 원산지인 비타민과 아미노산, 미네랄 등 고함량의 영양소와 폴리페놀 등의 항산화성분이 들어 있다. 인간에게 필요한 영양을 두루 갖춘 '기적의 나무'나 '생명의 나무'로 불리며 슈퍼푸드라고 각광받고 있는 식물이다.

장일중 순천시농업기술센터소장은 "지역 산림특화작물인 모링가의 재배 기술 및 정보교류가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모링가 1차 가공판매 뿐만 아니라 2차적으로 다양한 모링가를 활용한 지역관광상품 개발로 6차 산업화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순천=박선천 기자 psc@kwangju.co.kr

'한평정원 페스티벌' 14일 개막

순천만정원서 한달간 축제

'제5회 대한민국 한평정원 페스티벌'이 오는 14일 오후 2시 순천시 오천동 순천만 국가정원에서 개막한다. 아마추어 작가들이 심혈을 기울여 만든 50개 정원을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다.

11일 순천시에 따르면 올해 5회째를 맞이하는 '대한민국 한평정원 페스티벌'은 전국 각지에서 디자인을 공모한 후 심사를 통해 선정된 일반부 25팀 및 학생부 25팀이 개성 있고 창의적인 정원을 선보여 관람객들의 이목을 끌 전망이다.

특히 올해 처음 신설된 '조정작가 정원 부문'은 영국에서 활동 중인 황혜정 정원디자이너가 이름을 올렸다. 황혜정 정원디

자이너는 2016년과 2018년 영국 첼시플라워쇼에서 실버길드 메달을 2회 수상한 바 있다. '남북한의 교류'라는 주제로 남북 정상의 역사적인 만남과 교류를 정원으로 표현하는 수준 높은 작품을 전시했다.

개막식은 14일 오후 2시 사전 버스킹 공연과 함께 한평정원 페스티벌 행사장인 순천만국가정원에서 참여작가, 관련 단체 및 기관,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순천시 관계자는 "한 달간 순천만 국가정원에서 펼쳐질 '대한민국한평정원 페스티벌'을 통해 각양각색의 다양한 정원을 보며 지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힐링의 시간을 갖고 정원 문화 트렌드도 엿보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순천 어린이 책 축제' 15일 개최

기적의도서관 옆 버드내공원

'도서관에서 평화를...' 주제

순천시는 오는 15일 순천기적의도서관 옆 버드내공원에서 '제4회 순천 어린이 책 축제'를 개최한다.

'도서관에서 평화를 노래하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2018 책의 해와 기적의도서관 개관 15주년, 남북교류 및 평화의 시대를 맞아 어린이와 시민, 온가족이 즐기는 평화축제로 마련된다.

특히 이번 축제는 21기까지 배출된 기적의도서관 어린이사서와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한다.

또 순천시립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은 물

론 어린이도서관연구회와 어린이책시민연대, 순천 YMCA, 유익한 상점 등 10개의 어린이 관련단체, 서점과 동네책방도 함께 한다.

주요 프로그램은 오전 10시 풍물길놀이와 퍼레이드를 시작으로 마린보이의 '나홀로 서커스'가 펼쳐지는 공연마당, 각종 사진과 책을 볼 수 있는 전시마당이 있다.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20여개의 참여 체험 및 놀이마당이 마련된다.

순천시 관계자는 "어린이 책축제를 통해 지역사회 책문화 네트워크가 넓고 풍성해지고, 어린이와 함께 평화를 이야기하는 시민 소통의 마당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순천=박선천 기자 psc@kwangju.co.kr

노안수술 받으면 돋보기 없이 J1, J2 글자를 읽을 수 있습니다

1652 point, 68247581 point, 251649783 point, 130758492 point, 246371280 point, 462810973 point, 576214302 point, 691749802 point, 87711200 point

노안수술 후 읽을 수 있는 글자 크기

신세계안과 문의 1566-9988

농촌의 새로운 희망

농림축산식품부, 에너지관리공단, 농협

농촌 태양광 농업진흥구역 규제완화
대통령령 제28838호, 5년거치 10년상환, 년 1.75% 가능

90% 용자 지원 사업 선착순 접수

연금 발전소 태양광이 효자!!

▶ 정부에서 보장하는 안정적 투자
▶ 200KW설치시 연금처럼 월 500만원 꼬박꼬박 (25년동안 년평균 6,000만원)

연락주시면 방문하여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100년 기업 **믿음 · 신뢰 (주)해가온개발**

상담 전국대표 1588-1543 이길영 010-3645-1479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66 해가온빌딩 1층